www.kci.go.kr

한국고전연구 58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2/5 ~34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2.58.5

19세기 가사 〈청룡가인한창가〉 속 애정의 형상화 방식과 자기표현의 의미*

유정선**

〈차 례〉

1. 문제의 제기
2. 일대기 구성과 '감정 토로- 이성적 설득'의 교차적 배치
3. 주체적 사랑 대 사회적 시선의 무게
 1) 애정의 재현, 사랑 혹은 오입
 2) 절의와 지식, 타자성에 대한 부정 혹은 윤리의 무게
4. 19세기 하층 여성 화자의 자기 서사, 주체적 사랑과 욕망의 성취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세기 가사 〈청룡가인한창가〉 속에 구현된 애정의 형상과 그 안에 드러난 자기표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하층 계급인 여성 화자는 현재 시점에서 임과의 재회를 통해 사랑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삶의 일대기 안에서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다. 불우한 시절을 보내며 창가(娼家)에 투신하였고, 뜻에 맞는 상대를 만났지만 헤어지게 되었다. 이에 임과의 재회를 원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한다. 이를 구성하는 방식은 일대기 속에서 감정 토로와 이성적 설득을 교체시키는 것이다.

실상 청주의 유흥 공간을 찾은 임과의 만남은 사회적 시선에서 볼 때 '오입'에 가까워 보이며, 재회하여 사랑이 성취되어야 할 당위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화자는 자기감정의 순수성과 열도를 강조함으로써 그 필연성을 임에게 설득시키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768).

**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연구원

www.kci.go.kr

이를 위해 감정의 강약과 밀고 당김을 적절히 조절하여 정감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합의'와 '절의'라는 윤리적 이름으로 호명한다. 이 '뜻이 맞음'과 '절의'를, 노류장화(路柳墻花)가 함의하는 타자성에 대한 대립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한다. 스스로의 의사에 기반한 상호 합의와 자신을 알아준 것에 대해 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임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합의인이며, 이러한 선택은 결국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주체적이다. 물질적인 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감정의 순수성을 주장함으로써 역으로 힘이 있는 임 역시 개의하지 말고 금력(金力)을 사용하여 자신을 데려가 줄 것을 청한다.

19세기 가사 〈청룡가인한창가〉는, 기왕의 애정 가사에서 대상화되어 있던 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또한 하층 여성으로서 분명한 자기 이해에 바탕을 두고, 수동적인 감성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구애로써 자신의 현실적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가사, 청룡가인한창가, 하층, 여성화자, 19세기, 사랑, 주체

1. 문제의 제기

문헌 『소수록』에 실려 있는 가사 〈청룡가인한창가〉는 19세기 중·후반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록』은 기녀와 관련된 글 총 14편이 실려 있는 한글 잡록으로서 〈청룡가인한창가〉 역시 기녀가 쓴 작품으로 판단되어왔다.[1] 이에 대해 최근에는 이 잡록집이 여성의 자술(自述)을

1) 처음 『소수록』을 발굴·역주하여 선편을 잡은 연구로 정병설의 연구가 있다. 이 저서에서는 『소수록』을 기녀들의 진심과 육성을 들을 수 있는 문헌으로 보았다.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 소수록 읽기』, 문학동네, 2007, 12쪽. 이어 박수진은 『소수록』이 해주 기생의 문화 사회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지방 관아에서 엮은 것으로 기생과 양반과의 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 보았다. 박수진, 「『소수록』에 나타난 기생들의 내면 의식과 사회문화」,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

www.kci.go.kr

기록한 책이 아니라 남성 작자이자 편자가 편찬의식을 가지고 편집 내지 창작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2] 다만 남성 작가가 창작했다고 본 후속 연구에서도 여전히 작가가 가능한 한 철저히 작중 화자의 심중을 이야기하려 함으로써 작중 화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다고 보았다.[3]

한편으로 최근 연구에서 이상원은 작품 속 여성 화자가 기녀가 아닌 사당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유랑생활을 보여주는 '초행노숙'(草行露宿)의 시어를 비롯하여, 놀이 공연과 잡가를 부르는 모습이 재현되는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유랑예능인인 사당패라고 보았다. 나아가 작품 본문 속에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는 것에서 유추하여, 안성 청룡사를 근거지로 둔 사당패의 일원인 여자 사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

여기서 화자의 구체적인 근거지를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천착할 필요가 있어 유보적이지만, 그 직업이 사당이라고 본 견해는 타당하다고

회, 2016, 232쪽.

2) 김혜영은 『소수록』 수록 작품 전체에 걸쳐 기녀와 관련된 동일한 전고가 많이 활용되었고, 기녀 관련 애정소설의 등장 인물도 동일인을 여기저기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러 작품에 동일한 기녀 관련 전고와 애정소설 주인공을 언급한 사실, 21수의 시조에 16수의 종장 첫 구가 모두 '아마도'로 시작하는 창작습관을 드러낸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소수록』은 한 사람의 작자가 기생방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데 모아 자신의 관점을 투영시켜 일관되게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았다. 김혜영, 「『소수록』의 성격과 작자 문제」, 『어문논총』 61,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181~186쪽.

3) 『소수록』이 한 남성 작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기획, 배치된 잡록으로 추정하고, 편찬의식으로는 남성 작가가 '기녀의 존재 가치 긍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녀의 가치를 높이고 예찬하기 위한 의도로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김혜영, 「『소수록』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124쪽. 『소수록』의 작자이자 편자는 14편의 작품 속에서 가능한 한 철저히 기녀의 입장에서 또는 객의 입장에서 작중 화자의 심중을 이야기하려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작품의 내용상 사실에 근거한 서사가 있는 점과 시기 등이 다른 점은 한 작자가 모두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를 창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김혜영(2014), 앞의 논문, 190쪽.

4) 이상원, 「『소수록』 소재 청룡가인한창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44, 한국시가연구학회, 2018, 69~75쪽.

www.kci.go.kr

판단된다. 앞서 근거로 제시한 점들인 공연 장면을 비롯하여, 화자가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서 이곳저곳 떠돌고 있었던 점, 임과의 이별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없어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술회한 점 등을 참조해보면 공연을 하며 유랑생활을 하는 사당일 가능성이 높다. 즉 문헌 『소수록』 이 주로 기녀들의 서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작품의 화자를 '사당'이라고 특정하는 것에는 조심스럽다고 해도, 적어도 화자는 유랑생활을 하는 유흥가의 하층 여성으로 판단된다. 유랑은 임과의 이별을 비롯하여 화자의 삶을 특징 짓는 인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작품은 사당으로 추정되는 하층 여성 화자와 '선달'로 불리는 양반[5]인 임 사이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의식에 관하여 기왕의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계산보다는 이별의 아픔을 공유하고 재회의 날을 기약하는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핵심[6], 여인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랑해주는 남성을 만나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이라는 당대 기녀들의 애정관을 보여주는 작품[7] 등의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작가와 화자의 신분이라는 실증연구를 위주로 한 작업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작품의 여성 화자가 노래하는 사랑의 성격에 대해 좀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이 시기 하층 여성에게 신분이 높은 상대 남성과의 사랑이 지니는 의미이다. 신분적 열세에 놓인 여성, 특히 기녀로 대표되는 유흥 공간 속 여성들의

5) 이상원(2018), 위의 논문, 77~80쪽. 이상원은 더 나아가 양반 출신의 판소리 명창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대 남성인 선달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작품 〈답이라〉를 참조하여 추론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청룡가인한창가〉 본문에는 '선달'이라는 호칭만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반 출신으로 보되 그 구체적인 직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기로 한다.

6) 이상원(2018), 위의 논문, 81~86쪽.

7) 김혜영(2019), 앞의 논문, 136쪽.

www.kci.go.kr

자의식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대 유교의 '인의예지 삼강오륜 사대부집 참바 올바 쇠사슬'[8]의 사회적 시선 속에서 제도권 밖의 그 사랑이 지속 또는 성취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랑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이가 아니므로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이 여성들이 현실적인 헤아림 없이 사랑에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자칫 자아가 훼손되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 남성에게 낭만적 사랑의 판타지를 구현하는 대상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9]

또한 기본적으로 소수자 문학에서, 작자 또는 화자로 등장하는 주변부 여성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자기를 소외시키기 쉽다. 이로 인해 이 작품 속에서 화자가 상층 이데올로기인 정절을 읊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소외시킨 것인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우회적 전략인지 의문을 던져준다.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동일 문헌에 수록된 가사인 〈찬해영명기명선이라(기생명선자술가)〉 의 주제의식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이 작품 속 기녀인 여성 화자가 정절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실현을 위한 실존적 선택과 욕망의 표출'[10] 대 '자기 존재의 소외와 가부장제로의 수

8) "추상같은 꾸지람이 사면으로 일어나니 인의예지 이러하며 삼강오륜 이러한가 언필칭 사대부집 참바 올바 쇠사슬에 의론도 분분하다", 권광범, 〈농서별곡〉 (역대가사문학집성 DB).

9) 위의 작품 〈농서별곡〉 에서 양반 신분의 상대 남성은 기녀 주옥과 혼인 약속을 하였으나 위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이별을 고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역시 19세기 가사인 〈군산월애원가〉 속 기녀 군산월 또한 양반 남성이 고향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믿고 해배(解配) 길에 따라나섰으나 가는 노정에서 느닷없이 이별을 통고받는다.

10) 정절의 유교 이데올로기는 자기 욕망 실현의 통로이며 실존적 전략이라 본 연구 (박애경,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기녀문학」,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199쪽); 수절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 존재의 표출로 본 연구(김신영, 「기녀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자기 존재의 표출방식」, 안동대학교

www.kci.go.kr

렴'[11]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제출되었기도 하다.

이 작품 〈청룡가인한창가〉 역시 이러한 물음을 일깨운다. 이 가사는 하층 여성 화자가 이별한 임에게, 돌아와 자신을 데려가 줄 것을 청하는 구애의 노래이다. 대담하고 도전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구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러한 구애의 명분으로는 상층의 유교 이데올로기인 절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작품 속에 표현된 애정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작품 속에서 하층 여성이 구현하는 목소리에 대해, 소수자로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주목하기로 한다.

2. 일대기 구성과 '감정 토로-이성적 설득'의 교차적 배치

이 작품은 총 551구로서, 1인칭 여성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일대기식으로 술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신의 출생 및 성장 과정을 비롯하여 현재의 삶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생을 술회한다. 그 세부 구성은 다음

석사학위 논문, 2014, 29쪽) ; 자기 욕망의 표출로 본 연구 (김정석, 「기녀가사의 내면의식과 태도 고찰-〈찬해영명기명선이라〉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015, 405~406쪽) 등이 있다.

11) 기생으로서의 삶을 부정하고 생존 전략으로 당대 통용되는 절개라는 가치를 수용하였다고 본 연구(박혜숙, 「기생의 자기서사-〈기생명선자술가〉와 〈내 사랑 백석〉」,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227쪽); 억압적인 기존의 여성 섹슈얼리티를 강화하며 기생의 존재를 소외시켜 가부장제에 수렴되었다고 본 연구(김진희, 「조선조 서사물에 나타난 기녀 섹슈얼리티의 함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고소설연구학회, 2011, 364쪽); 몸이 스스로의 의식에서조차 간접화된 대상으로 다뤄지며 자기의 시선이 아닌 남성의 시선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본 연구(황혜진, 「조선시대 기생의 몸에 대한 자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82쪽) 등이 있다.

www.kci.go.kr

과 같다.

〈1〉 서사 1~17구 (홍몽이 쵸분ᄒᆞ니 ~ 일기 여ᄌᆞ 되여나며)
〈2〉 성장 과정 및 사당이 되기까지의 과정 18~85구 (운건시괴 하며 ~ 합의인 만날손가)
〈3〉 유랑 과정 86~145구 (북그림 무릅쓰고 ~ 합의인 바의 업고 비위 역한 쏠일너니)
〈4〉 임과의 만남과 이별 146~195구 (월노가 인도ᄒᆞ고 ~ 말은 맛치 안커니와)
〈5〉 이별 후 심경 196~526구 (혜어보고 싱각ᄒᆞ오 ~ 음양을 박굴숀가)
〈6〉 결사 527~551구 (금강으로 흐른 물은 ~ 금강물이 다 마를 듯)

〈출생, 성장 과정, 임과의 만남과 이별, 이별 후 심경〉 의 전체 구성 중 현재의 시점인 '이별 후 심경'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때 시상의 전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선형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각 대목은 자신의 경험을 술회하는 '감정 토로'와, 고사를 인용하여 그 경험의 배경이나 판단의 명분을 제공하는 '이성적 설득'이 교직되는 방식을 취한다.

〈1〉 '서사'에서 한나라 한신(韓信)과 월나라 범려(范蠡), 전한(前漢)의 주매신(朱賣臣)를 언급하며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한탄한다. "월나라 범쇼빅(范少伯)은 평오픽월(平吳覇越) ᄒᆞᆫ 연후에 편쥬유어오호(片舟遊於五湖)하고/ 긔식쵸묘(寄食漂母) ᄒᆞᆫ신(韓信)이난 쵸국봉왕(楚國封王) ᄒᆞ여 잇고/ 나무 비는 쥬미신(朱賣臣)은 호계ᄐᆡ슈(會稽太守) ᄒᆞ엿단ᄃᆡ"[12]라 하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범려와 빌어먹던 한신, 땔나무를 베어 팔던 주매신 등 모두 가난하였지만 출세한 인물들을 예로 들며, 가난한 자신이 하필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자탄한다.

12) 본 논문에서 작품의 주석은 앞서 제시한 정병설의 저서 속 역주를 따랐다.

www.kci.go.kr

〈2〉 '성장 과정'에서는 불우한 성장 과정에 대해 말한다. 십 세가 안 되어 부모를 여의고 사고무친(四顧無親)으로 힘들게 지냈다.[13]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 막막했던 삶으로, "ᄉᆞᆼᄒᆞ(上下)에 무친(無親이요 좌우(左右)에 무형제(無兄弟)라/ 고독한 이ᄂᆡ 일신 의지할 곳 어ᄃᆡ메니/ 광ᄃᆡ한 이 천지에 한몸 의지 어렵도다/ ᄉᆞᆫᄉᆞ(山寺)의 북을 듯고 야졈(野店)에 ᄂᆡᄎᆞᄌᆞ니/ 표락한 이ᄂᆡ신셰"라 하여 광대한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산사와 들을 떠도는 신세였다 한다. "실낫갓치 가ᄂᆞᆫ 목숨 보전하기 난ᄆᆞᆼ이라/ 신셰가 약ᄎᆞᄒᆞ니 무어슬 사양하리" 하여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었음을 서글픈 어조로 회상한다. 십육 세가 되어서도 '혼인하고 지아비를 맞이하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이 "절통코도 가련하다"고 한다. "금수위인 아니어든 진실 질계 이러할가 그릇 투신한 타시라"라 하여 유랑하며 실신(失身)한 허물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맹부자(孟夫子) 삼천지교(三遷之敎)의 고사, 제나라 안영(晏嬰)의 고사인 귤화위지(橘化爲枳) 등을 제시하는가 하면[14], "죵ᄌᆞ(種子)난 일반(一般)이나 토리(土理) 그른 탓시로다"·"단발문신(斷髮文身) ᄎᆞ역시 풍속이라"라 하여 타고난 팔자와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허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성적으로 설득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팔이 되어 자신이 창가(娼家)에 스스로 몸을 맡기었지만 합의인(合意人)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3〉 '유랑 과정' 부분은 창가에 몸을 맡긴 후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충청도 일도를 유랑하며 지냈던 삶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안성, 온양, 연풍,

13) "십세를 다 못 지나 천붕코 지함ᄒᆞ니 가련한 이ᄂᆡ 인싱 바라 리 뉘 이스리"

14) "아셩공(亞聖公) 밍부ᄌᆞ(孟夫子)도 삼천교(三遷敎) 바드시고 초한 시 진유ᄌᆞ(陳儒子)도 ᄇᆡ함추명(排陷醜名) ᄒᆞ여스니 이내 일 이리 됨도 ᄎᆞ 역시 팔ᄌᆞ이며 강남에 죠흔 귤도 강북의 올마오면 변ᄒᆞ여 기(枳)가 되고"

www.kci.go.kr

천안, 단양, 제천, 음성, 괴산 등을 돌아보며 “이니 일 싱각힌 간 곳마다 붓그럽다”고 하여, 이슬을 맞으며 풍진(風塵) 세월을 보내는 동안 뜻에 맞는 사람은 없고 비위 상하는 꼴만 보았다고 한다.[15]

〈4〉 ‘임과의 만남과 이별’에서는 임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노래한다. 봄날이 한창일 때 우연히 만난 임은 뜻에 맞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바랐던 사람이었다.[16] 상대 남성은 유흥 공간을 찾은 선달님이다.[17] 살아생전 이별 없이 지내고자 일신에 실린 허물을 결신(潔身)하여 섬기고자 하였으나 얼마 못 가 어쩔 수 없이 임과 이별하게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어 역시 다양한 고사를 거론하며 자신 역시 자기를 알아준 임에 대한 절의를 지켜야 함을 이야기한다.

〈5〉 ‘이별 후의 심경’ 부분은 그리움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먼저 “헤어보고 싱각ᄒᆞ오 일호 거짓 헛말 될가”라 하여, 그리움을 노래한 내용에 대해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밝히며 시작하고 있어 임에 대한 전언임을 드러낸다. 이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이별의 쓰라림이 집중적으로 재현된다. “어드면 다 어드며 임이면 다 졍일가/ 동방화촉 이슴 야의 무슴 졍이 이러ᄒᆞ오/ 닉 일 닉 모르오 졍이 아녀 곳 병인 듯” 이라 하여 애원 내지 간청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감정 과잉의 격한 수사들을 누벼놓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매우 사실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 부분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발산과 함께 설득의 어조가 교직된다. “여ᄌᆞ의 일생고락이 장부의게 달려긔로” 중요한 임이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다. 이를 고사에

15) “쵸로 풍진 지닉 셰ᄉᆞᆼ/ 합의인 바의 업고 비위 역한 ᄭᆞᆯ일너니”

16) “도원 중춘 망염간의 우연이 맛난 임이/ 뜻셰 마즐 뿐 아니라 나의 진짓 소원이라”

17)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양반으로 추정된다. 이상원(2018), 앞의 논문, 78쪽.

www.kci.go.kr

비유하며 고금이 다를 것인가 반문한다. 이는 자신의 마음의 결심이 정당하다는 표현이면서 상대의 결단에 대한 촉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자신을 빼낼 힘을 지닌 임에게 어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청한다.

⟨6⟩ '결사'로서, 흐린 정신을 수습하여 대강 추려 기록하며 쌓인 한을 다하여 적으려면 '남산 죽(竹)이 부족하고 금강 물이 다 마를 듯하다'며 끝맺는다.

이상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는 임과의 재회를 통해 사랑을 성취하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다루면서 방점을 두고 읊고 있는 것은 그동안 뜻에 맞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 그러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임을 만나게 되었지만 헤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재회를 간청하는 부분이 가장 확장되어 있다. 그 임과의 재회를 통한 사랑의 성취 방식은 '권력을 지닌' 임이 찾아와서 자신을 이곳에서 빼내 데려가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내용은 '감정 토로'와 '설득'의 어조가 교체되면서 사랑의 성취라는 목적으로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자의 자기 서사를 이끌어 가는 동력은 사랑의 성취를 바라는 화자의 욕망이다.

3. 주체적 사랑 대 사회적 시선의 무게

1) 애정의 재현, 사랑 혹은 오입

현재 시점에서 여성 화자가 자기 삶을 술회하게 된 계기는 임과의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별'이라는 현재 상황에 처하여 그리움의 감정 토로와 재회의 소망을 집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자신이

www.kci.go.kr

창가(娼家)에 스스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처지, 뜻이 맞는 임을 만날 것을 기대했으나 한동안 만날 수 없었던 상황, 우연히 임을 만나고 뜻하지 않게 이별하게 된 것 등이 현재의 절실한 욕구인 사랑의 성취로 수렴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 부분에 위치한 '어려웠던 성장 과정'의 묘사는 노류장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윤리적 존재 증명의 호소로 기능하는 면이 있다.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서글픈 어조로 재현하면서 "실신한 이니 허물쥬야에 한"·"이닉 일 싱각ᄒᆞ니 간 곳마다 붓그럽다"·"북그림 무릅쓰고 일도를 철환ᄒᆞ니"라 하여 '부끄러움'에 대해 말한다. 그렇게 실신(失身)한 허물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이해받고자 한다. 창가에 적을 두고 뜻에 맞는 임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셰ᄉᆞᆼ 합의인 바의 업고 비위 역한 ᄉᆞᆯ"만 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핵심내용인 '만남과 이별'의 애정사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 층위에서 부조된다. 작가가 재현하고 있는 사랑은 '청주'와 유흥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18] 둘의 만남은 이삼 일의 기간에 유흥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만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 화자와, 유흥 공간을 찾은 임과의 만남은 '오입'에 가까워 보인다. 이틀간의 시간, 두 번의 밤을 같이 보냈다는 것은 기껏해야 이삼일에 불과한 사랑이며, 이는 그저 그런 청루에서의 일시적인 오입에 가깝다. 남녀가 함께 한 시간이 꼭 사랑의 깊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시선에서는 일회성 만남으로 비추어지기 쉽다. 더욱이 이들은 헤어지면서 어떠한 언약을 한 사이도 아니며 이 점에서 재회를 바라는 심경도 일방적인 소망에 가깝다.

이때 상대방인 임의 모습에 대한 묘사나 사랑을 나눌 때의 상황이나 감

18) "금강으로 흐른 물은 청주를 지나슬 듯"·"홍상관 쓴 기력아 니 닉 신원 가져다가 청주 셩남 우리 임게 마듸마듸 젼ᄒᆞ여라"

www.kci.go.kr

정 등은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 뜻에 맞는 사람을 줄곧 만나지 못하였고 유일한 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임이면 다 정일가 동방화촉 이슴 양의 무슴 졍이 이러ᄒᆞ오 니일 니 모르오”라 하며 자신도 ‘이유를 모를 만큼’ 정이 깊게 빠져들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럼에도 여성 화자가 구체적인 사회적 개인으로서 발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관계가 유흥 공간의 일회적 관계인 ‘오입’이라 부른다는 것을 언명함으로써 이러한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숨화양ᄉᆞ(三瓦兩舍) 연화(緣化)[19] 중의 오입 ᄎᆞᄌᆞᆫ 님의 졍을/ 니 역시 짐작 것만 눈 뜻고 몽압이요 알고 지난 시름이라/ 견물싱심(見物生心) 이니 졍회(情懷) 무비단중ᄉᆞᆼ심처(無非斷腸傷心處)라

이라 하여 화자는 ‘오입 찾은 임의 정을 내 역시 짐작건만’이라 표현하여 스스로 그 만남을 ‘오입’이라 지칭한다. 즉 만남의 시작은, 임이 오입을 위해 유흥공간을 찾은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임을 보자 견물생심으로 상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화자는 이러한 유흥 공간에서의 짧은 만남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만남보다는 이별 후의 감정 토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재회의 당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자신의 감정이 진실되고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별 후의 그리움을 노래한 부분이 가장 확장된 것은 이에 연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세세하고 절절하게 그려낸다.

둘이 헤어지게 된 계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졍이 아녀 곳

19) 정병설은 ‘연화(煙火)’라 하여 기생집의 속세로 주해한 것에 대해 이상원은 ‘연화(緣化)’로 풀이하여 사당패의 공연장을 뜻한다고 보았다. 이상원(2018), 위의 논문, 73쪽.

www.kci.go.kr

병인 듯/ 광풍의 불닌 낙화 어니고를 향한난지/ 총망이 ᄒᆞ직할 졔" 하여 병이 될 정도로 깊은 감정을 뒤로 하고 화자 자신이 떠난 것으로 나타나며, "남의게 미인 몸이 ᄌᆞ힝ᄌᆞ지(自行自止) 할 길 업고 일시 민망 지리ᄒᆞ요"라 하여, 남에게 매인 몸이어서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었노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사랑을 나눌 당시의 내용에서는 장면화된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이별하는 정경은 장면화되어 헤어질 당시의 임과 나의 모습이 핍진하게 재현된다.

> 광풍의 불닌 낙화 어니고를 향한난지/ 총망이 ᄒᆞ직할 졔 잘 잇거라 보중ᄒᆞ오/ 설마 다시 못 보랴 이별인 듯 ᄒᆞ직인 듯/ 놉흔 ᄒᆞ날 무너지고 구든 짜이 써지난 듯/ 임 위ᄒᆞ여 듯난 눈물 졍신이 아득ᄒᆞ고/ 훌훌이 가난 심ᄉᆞ 압길이 막막이라/ 가난 쳡 가게 두고 잇난 님 잇게 ᄒᆞ니/ 가고 싶어 ᄂᆡ 가오며 보ᄂᆡ고져 보ᄂᆡ시오/ ᄉᆞ세부득(事勢不得) 그러ᄒᆞ니 피ᄎᆞ 숑심 일반이라/ 장부의 허한 마음 헌실갓치 알오련만/ 녀ᄌᆞ의 약한 중위 미듸미듸 쓴쳐지고/ 명옥(明目)이 요감(欲暗)이라

"잘 잇거라"·"보중(保重)하오"라 하여 서로 오고 간 대화의 기억을 회고하며, "가고 싶어 ᄂᆡ 가오며 보ᄂᆡ고져 보ᄂᆡ시오 ᄉᆞ세부득 그러ᄒᆞ니 피ᄎᆞ 숑심 일반이라"라 하여 서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으로 말한다.

특히 그리움을 노래한 대목에서는 반복되는 일상의 촘촘한 시간들을 채우는 산란하는 감정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상ᄉᆞ곡 노리할 졔 그 닷ᄒᆞ랴 ᄒᆞ여드니 ᄂᆡ 지금 싱각ᄒᆞ니 오이러 셔운도다"라 하여 공연자로서 상사곡을 노래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랴 생각했었으나 사랑에 빠진 지금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에 차지 않을 정도이다. "쵸힝노숙 이ᄂᆡ 거동 무엇 위한 ᄂᆡ길인가/ 유산도수 ᄎᆞᄌᆞ 간들 님이 그곳 게시올가/ 말염이 ᄉᆞ라지고 빅ᄉᆞ의 뜻시 업서/ 식음이 다 존으니 일신이 무겁도다"·"임의 주신 싱각이요 가져가신 줌일넌가/ ᄌᆞ고져 줌 못들고 이져마ᄌᆞ 못 이즈니/ 노르미 무엇시며 줍가가 무엇시오"라 하여 유랑하면서도 지향이 없어진 상황이며,

www.kci.go.kr

공연 중 노름과 잡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공연을 하는 도중 “수풀갓치 바다갓치 ᄉᆞ면으로 벌니 ᄉᆞ람/ 핑핑 도라 졸나 보니 황통 양총 모ᄌᆞ의 푸른 충의 간ᄃᆡ 업고/ 봉두난발 그 모양이 무비잡유파락호라” 라 하여 관중 속에 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봉두난발을 한 파락호였음을 깨닫고 실망한다.

이때 자신의 절박함과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들로서 때로는 상투적 표현들로 긴장성을 상실한 어구들이 군데군데 배치된다. ‘심화(心火)’ · ‘혈누(血淚)’ · ‘적담(赤痰)’ · ‘사는 것이 귀치 안코 죽음 마음 뿐’ · ‘오장(五臟)의 이난 화(火)난 연긔 업난 불이로다’[20] · ‘춤아 졀통(切痛) 셔른지고’ · ‘ᄉᆡ벽 셔리 찬 바람은 병든 ᄯᅢ를 ᄯᅮ로난 듯’ · ‘촉빅셩(蜀魄聲)이 단ᄌᆞ희(斷腸悕)라’ 등은 당시 유행했던 통속적인 노래들인 상사가 류와 공유하는 감성이다.

그러면서도 행불행(幸不幸)을 오가는 진자운동을 보여주는 초조한 심리 묘사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심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가도 다시 확신에 찬 듯한 감정을 읊으며, 잊을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이별 장면을 복기하는가 하면, 상대에게 위협적 언사도 던져본다. 상대에게 나는 아무도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표출하는가 하면, 임의 현재 감정은 어떠한지, 자신의 감정과 같은지 되묻고 있다. 이렇게 만든 상대에 대한 원망과 확신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초조함의 감정, 또 임을 원수라고 하다가 다시 실언(失言)이라고 하는 등 원망과 애달픔의 정서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러한 임을 향한 마음은 사실적이어서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자기 존중감을 느끼게 한 임과 맺어지고 싶은 심경과 또 짧은 사랑이었기에 임이 잊었을까 초조해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화자가 문면에 드러낸

20) “나든 우슴 주러지고 심화가 졀노 나니 금시 죽어 모르고져 밧치난이 젹담이요 흐르난이 혈누로다 ᄉᆞᄂᆞᆫ 것시 귀치 안코 죽을 마음 뿐이로다”

www.kci.go.kr

것처럼 극단적일 정도로 감정 자체에 몰입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사랑의 성취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랑의 성취를 위해 물질적 욕망을 부정하고 애정만을 갈구한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감정의 순수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모든 술회들이 '이곳에서 빼달라는' 적극적인 구애의 전언으로 수렴되고 있다.

> 션단님 궐녁으로 ᄂᆡ 한몸을 못 건질가/ 천금이 꿈쇽이라 시타(是他)를 싱각홀가/ 고당ᄃᆡᄒᆞ(高堂大廈) 쯧이 업고 금의옥식(錦衣玉食) 싱각즌소/ 가시 빈여 ᄇᆡ치마로 일신(一身)을 가리오고/ 나물 국죽 토중으로 ᄒᆞ로 한 ᄯᅥ 연명ᄒᆞ나 우리 님 뵈옵고셔/ ᄇᆡᆨ년히로 지닐진던 연국부인 이아션을 ᄂᆡ 아니 원할엿만/ 중부에 굿은 마음 쳡에 졍을 아로시나

'선달님의 권력(權力)으로 내 한 몸을 못 건질 것이며 천금(千金)이 꿈속이라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다'고 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임에게 천금이 중요하지 않듯이, 나도 또한 고당대하(高堂大廈) 나 비단 의복이 중요하지 않으며 하루에 한때로 연명해도 정든 임을 따르겠다고 하며, 가시 비녀와 삼베 치마로 지내도 임을 뵙고 싶다고 한다. 이러한 순수성과 절박함을 강조함으로써 임 역시 나를 빼내기 위해 치를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논리로 이월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후에는 극단적인 자학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상대를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해 들어간다. 초조하게 "일부함원(一婦含怨) 오월비ᄉᆞᆼ(五月飛霜) 님도 더러 싱각ᄒᆞ오라" 하여 협박성 언급도 던져보고 "의형(儀形)은 날노 환탈(換奪)ᄒᆞ여 좁든 의복 널너가고 얼골은 시로 쇼삭(消索)ᄒᆞ여 희든 양ᄌᆞ(樣姿) 거머지니"라 하여 애원도 해본다. '훼척골입'(毁瘠骨立)·'상사병'·'상사귀'·'원귀'(冤鬼)'·'천음우습(天陰雨濕)' 등 어둠과 죽음을 연상케 하는

www.kci.go.kr

이미지들을 반복 사용한다.

다음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극단적인 자학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낸 부분이다.

> 이탓시 뉘탓이요 니탓시오 임탓시오/ 죽난 나도 닉연이와 빅인이 유아사로 님인들 평안ᄒᆞ며/ 천음우습 흐린 날에 월낙숨횡 요적시에/ 임 계신 ᄉᆞ충 젼에 ᄋᆡᄋᆡ 실셩 우을진던 단명ᄒᆞ여 죽다홀가/ ᄉᆞᄌᆞ불가부싱이요 후회막급 쓸디업다/ 죽어도 달이 말고 ᄉᆞᆼ당ᄉᆞᆫ 놉푼 봉의 디굴디굴 구러ᄂᆞ려/ 숨빅 육십 쎗미듸가 가로갓치 ᄇᆞ와져셔/ 동주셩디 임의 곳의 빅셜갓치 뿌리고져

'상당산 높은 봉우리에 대굴대굴 굴러내려 삼백 육십 뼈마디가 가루같이 부숴져서 임의 곳에 백설같이 뿌리고저'라는 극단적인 자학적 표현은 마지막 방점을 찍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며 욕망에 대한 갈급함의 표현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작품 속에서 가장 비중을 지닌 대목인 이별 후의 그리움을 술회한 부분은 그 강하고 극단적인 화법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아픔 때문에 저절로 터져 나오는 탄식을 형상화한 것이기보다는, 설득을 위해 밀고 당기는 감정의 강약을 적절히 조절하며 재현함으로써 '정감을 배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화자는 구체적인 재현을 통해 물질적 욕망을 부정하고 감정의 순수성과 사랑의 열도를 강조하면서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술회하며 자연스럽게 임의 행동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리하여 사랑의 감정 자체에 몰입되어 있기보다는 그것을 실현할 현실적 방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또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적어도 현재의 사회적 위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www.kci.go.kr

2) 절의와 지식, 타자성에 대한 부정 혹은 윤리의 무게

이러한 목적성의 의식은 시상 전개에 따라 정서의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감정적 호소-이성적 설득'의 요소가 교차되고 있으며, 이때 감정의 이완을 주도하는 것은 윤리의 호명과 지식의 활용을 통한 설득의 요소이다.

화자는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 또는 임과의 관계를 '합의(合意)'와 '절의(節義)'라는 윤리적 이름으로 호명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사랑'보다는 '뜻이 맞음'·'절의'로 명명하고 있다. 화자가 유흥 공간에 있는 여성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절 이데올로기의 소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의문을 던져준다.

그런데 화자는 줄곧 언급하는 '뜻이 맞음'과 '절의'의 이념을, '노류장화(路柳墻花)'가 함의하는 타자성에 대한 대립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한다. 기왕에 노류장화라 하여 누구든지 쉽게 넘볼 수 있고 꺾을 수 있는 '쉬운 여자'로서의 이미지는 기녀로 대표되는 화류계 여성들을 특징 짓는 상징적 이미지였다. 이들은 직능의 특성상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다거나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기 힘든 타자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속 화자는 "노류장화 웃지 마오 뇌봉전별 한이 깁소"라 하여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탄식하면서도 임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의사에 기반한 상호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쵸로 풍진 지닉 셰숑 합의인 바의 업고 비위 역한 꼴 일너니"인 상황에서, "우연이 맛난 임이 뜻셰 마즐 뿐 아니라 나의 진짓 소원"이라 하여 임과의 관계는 뜻이 맞는다는 '합의'가 전제된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준 것에 대해 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랑이 성취되어야 할 이유로 '절의'라는 윤리적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ᄉᆞ불역신(事不逆信) 이닉 마음"·"ᄒᆞ물며 ᄉᆞ람되여 졀의를 모를손가"라 하여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절개를 지키는

www.kci.go.kr

것이 의무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발적 의지를 기반으로 자신을 알아준 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데에 '절의'의 핵심이 있다. "금수위인(禽獸爲人) 아니여든" "일신의 실닌 허물 결신(潔身)ᄒᆞ여 셤긔고져" 한다.

이 화자의 목소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절의를 지켜야 하는 명분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뜻에 근거하고 있다. 자신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은 기쁨을 합의의 근거로 든다.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적 특성과는 별개로 이러한 감정은 처음이며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임은 자신의 입장에서 힘들게 만난 상대로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합의인임을 언급한다. 이 '뜻'은 결국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남이 알가 고이하여 나는 한슘 싱켜 쉬고 셔방 볼가 염예ᄒᆞ여 솟난 눈물 슘겨 우니 이것시 무엇시오 졍이 안여 큰 원슈요"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기둥서방으로 짐작되는 '셔방'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틀 동안 함께 지낸 상대에 대한 절의를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절의의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현재 사랑의 감정을 예전 고사에 빗대어 그 정당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 마봉빅낙시(馬逢伯樂始)요 ᄉᆞ위지긔사(士爲知己死)라/ 지빅지신(智伯之臣) 예양(豫讓)이난 범중힝씨(范中行氏) 신ᄒᆞ(臣下)로셔 탄탄위아(呑炭爲啞)ᄒᆞ여 잇고/ 관공(關公) 타든 젹토마(赤免馬)난 화용졀ᄉᆞ(華容節死) ᄒᆞ여스니/ 미물도 져러커든 ᄒᆞ물며 ᄉᆞ람되여 졀의를 보를손가/ 쳔금ᄉᆞ죵(天琴相從) 탁문군(卓文君)도 ᄉᆞ마ᄉᆞ여(司馬相如) 죵노(終老)ᄒᆞ고/ 님안부(臨安府) 화괴랑(花魁娘)도 미유랑(賣油郎)[21]을 쏫ᄎᆞ나니/ 지졍식취 이러커든 봉친합에(逢親合意) 이를숀가

21) 풍몽룡의 중국 화본 소설 『삼언』 중 〈매유랑독점화괴〉의 왕미랑은 남송 때 임안의 명기로서 가난한 기름장수 진중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

www.kci.go.kr

이를 위해 백락(伯樂)과 예양(豫讓), 적토마의 고사를 들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한 사례를 제시한다.

> 여ᄌᆞ의 일싱고락 ᄌᆞ부의게 달여긔로/ 한나라 탁문군(卓文君)도 유장ᄎᆞᆫ혈(踰墻鑽穴) ᄒᆞ여 잇고/ 월왕궁(越王宮) 홍불긔(紅拂妓)난 쳘리마(千里馬) 도긔(盜騎)ᄒᆞ고 이위공(李衛公) 따라스니/ 지식 잇난 쇼견이야 고금이 다를숀가/ 일시일각이 전 업시 민망코 가련ᄒᆞ다

위에서 들고 있는 한나라 '탁문군(卓文君)'·'홍불기(紅拂妓)' 등 고사 속 인물들은 예교에 어긋나는 면이 있었지만 각기 자신이 선택한 상대를 따르기 위해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인물들이다. 탁문군도 사마상여와의 사랑을 위해 야반도주하였고 홍불기도 천리마를 훔쳐 타고 장수 이정(李靖)을 따랐다는 고사를 들며, 사람을 알아보는 소견이야 고금이 다를 것인가 반문한다. 화자에게 절개는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사랑을 선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주체성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동원된 고사들은 '설득' 내지 '자기방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죽음을 불사하고 의리와 신념을 증거했던 인물들[22]인 서진 때의 녹주(綠珠), 송나라 때 두십랑[23]을 열거함으로써 그 결의가 단단함을 드러낸다.

> 셔진시(西晉時) 석가(石家) 녹주(綠珠) 금곡(金谷)에 더져 죽고/ ᄃᆡ송시(大

22) 최병규, 「삼언(三言) 속의 정(情)과 욕(欲)」, 『중국어문학』, 영남중국어문학회, 2013, 43쪽.

23) 풍몽룡은 중국 백화단편소설 〈두십낭노침백보상(杜十娘怒沉百寶箱)〉을 『경세통언』에 수록하였는데,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한 두십낭을 송양하고 독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썼다. 김소정, 「두십낭 고사의 다시 쓰기」, 『중국학』 68, 대한중국학회, 2019, 281쪽.

www.kci.go.kr

宋時) 두십낭(杜十娘)은 투강익ᄉᆞ(投江溺死) ᄒᆞ엿나니/ 쇼쇼한 일녀ᄌᆞ(一女子)나 피아간(彼我間) 일반이라

여기서 절의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자신 몸의 흠절이 자신의 허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고사와의 비유를 통해서 풀어간다.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화자는 지식과 윤리에 대한 자의식을 빈번하게 표출하며 임을 선택한 자신의 뜻이 이성적 판단력을 수반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지식 잇난 소견'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지식, 즉 지인지감을 뜻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그 뜻과 판단을 뒷받침하는 고사들을 병치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감정에만 치닫지 않고 정서의 흐름을 이완시키고 있다.

화자에게 있어서 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름다운 용모가 아니라 지적인 면모이다. 지식은 사랑받을 수 있는, 곧 임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조건으로 중요하게 언급된다. 그리하여 지적인 면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고적에 대한 언급 은연 중 선현의 고적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24] 합의인을 못 만난 데에는 나의 이목이 넓지 않고 지식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25] 그럼에도 "무식한 이닉 몸을 금가치 귀이" 봐준 임은 뜻에 맞는 상대이다. 다분히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이와 같은 임을 선택한 것은 지적인 사고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작품 화자의 특징이다.

따라서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외모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24) "고적을 심망ᄒᆞ니 셔문회 승젼비는 죠중봉에 유적이요 북문 안 숨츙ᄉᆞ는 빅셰예 유전이라 이닉 일 싱각ᄒᆞ니 간 곳마다 붓그럽다"

25) "이목이 불광ᄒᆞ고 지식이 암미ᄒᆞ니 유시호걸 엇지 알니"

www.kci.go.kr

지식과 상대를 알아보는 능력인 지인지감과 결단력이다. 여기서 남자를 알아보는 지인지감은 '지식 잇난 쇼견'이며 상대에 대한 확신이 들면 과감히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짐짓 자신이 무식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다양한 고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지식 잇난 쇼견'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이유이다. 자신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충실하여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마음에 맞는 님이다' 싶으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깔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 임과 재회하고 결합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촉구한다.

4. 19세기 하층 여성 화자의 자기 서사, 주체적 사랑과 욕망의 성취

19세기 가사 〈청룡가인한창가〉는 여러 면에서 기왕에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가사 작품들과 차이를 지닌다. 19세기 들어서 '사랑'의 소재는 사대부가 지은 애정 가사뿐만 아니라 기행가사, 유배가사 등에 이르기까지 틈입한다. 또한 '상사가'라 통칭되는 통속적인 사랑 노래들도 다수 등장한다. 이렇게 애정사를 다룬 대부분의 가사에서 하층 여성은 구애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기녀로 대표되는 하층 여성 화자가 등장하여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가사가 출현한다. 19세기에 산출된 『소수록』에 실린 가사 2편과 〈군산월애원가〉는, 하층 여성들이 화자가 되어 자기 삶 안에서 사랑의 의미를 반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18·19세기 사대부 애정 가사에서 객체로 대상화되어 있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사랑을 노래

www.kci.go.kr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제 비로소 이전 18・19세기 사대부 애정가사에서 사랑의 대상으로만 나타나면서 누락되고 윤색되었던 여성들 자신의 목소리가 재현된다. 19세기 사대부 애정 가사 〈농서별곡〉에서 상대 여성인 기녀 주옥은 정숙한 요조숙녀로 재현되지만, 굳은 약속을 저버리고 이별을 통고한 양반 남성에게 받았을 그녀의 상처는 묵음 처리[26]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사대부 유배가사인 김진형의 〈북천가〉에서는 함경도 명천 기녀 군산월과의 애정사를 다루면서, 향락적 욕망과 낭만화된 애정담으로 그려내고 있다.[27] 즉 "선비의 졸한 몸이 이천리 기생 싣고 천고에 없는 호강 끝나게 하였으니"[28]라는 사대부 김진형의 발언에서 상대 여성인 군산월은 낭만적 사랑의 영웅담 속 대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반면에 19새기 들어 하층 여성 화자의 가사 작품들에서는, 여성 화자가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주체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의 의미를 탐색한다. 가사 〈군산월애원가〉에서 군산월은, 자신의 잘못 없이 하루아침에 낯선 길거리에서 부당하게 이별을 통보한 '양반의 고이한 행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때의 막막했던 심경을 읊는다. 이 점에서 이들 가사들은 동시대의 사대부 작 애정가사나 '상사가'로 불리는 통속적인 애정가사와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본 〈청룡가인한창가〉에서 여성 화자는 자기 삶 속에서 임과의 사랑을 노래하되 적극적인 구애의 주체가 된다. 이 임은 그동안 만나지 못

26) 정인숙, 「남성작 애정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형상화 방식-〈금루사〉와 〈농서별곡〉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08쪽. 또한 기녀라면 마땅히 꿈꾸었을 세속적인 욕망이 거세되어 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위의 논문, 311쪽.

27) 김윤희, 「19세기 사대부 애정가사에 표면화된 기녀와의 애정서사와 형상화의 특질」,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106~110쪽.

28) 김진형, 〈북천가〉, 역대가사문학집성 DB, 누리미디어.

www.kci.go.kr

했던, 뜻에 맞는 임이기에 사랑을 호소하며 자신을 데려갈 것을 간청한다. 그동안 하위 주체를 대표해왔던 기녀들은 시가 작품 속에서 우회적으로 자신들의 타자성을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기녀 시조들을 보면 자신이 아무나 취할 수 있는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노래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시가 작품의 경우 적극적인 구애의 목소리보다는 거절의 메시지나 수동적 기다림을 노래하는 방어적 성격의 작품들이 대다수였고, 구애의 포즈를 취하더라도 직능을 수행하는 직업의식에서 나온 작품인 경우가 많았다.[29]

반면에 〈청룡가인한창가〉에서는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 권력과 금전을 수단으로 자신을 빼내 줄 것을 청함으로써 그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그리움에 휩싸인 격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감정 자체에 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감정의 흐름을 적절히 배치하고 고사를 곁들여 충분한 해명을 한 후에, 자신이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고 있다. 자신의 사랑은 사회적 시선에서 볼 때 그저 그런 오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 사랑이 꼭 지속되어야 할 명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절의'라 명명하며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명분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순수하며, 물질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증명하고자 한다. 이는 임 역시 자신을 구해내기 위해 들이는 물질적 보상을 크게 문제 삼지 말라는 의도를 지닌다. 청루에 있는 자신의 처지는 더럽혀진 몸이라는 결격을 지니고 있지만 화자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절의는 육체적인 면보다는 정신의

29) 기녀시조의 경우 수동적인 감성을 노래하는 경향은 조선 후기에 강하며, 상대적으로 조선 전·중기에는 기녀들이 감성의 자유로움을 노래하였다. 성기옥, 「기녀시조의 감성특성과 시조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36~39쪽.

www.kci.go.kr

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30]

이와 같이 자신의 사랑이 열렬하며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확장되어 있는 부분은 감정 과잉의 '상사' 내지 '구애'의 언어로 짜여져 있어, 얼핏 보면 당대 다수 산출된 통속적인 상사가류와 유사하다. 이러한 감정의 표출에 집중함으로써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감정 과잉과 같은 통속적 문법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현실과 분리된 채 사랑의 상투적 수사만을 중첩적으로 구사한 작품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앞선 사대부 작 애정가사나 통속적 노래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개인으로서 거기에 수반되는 고난이나 장애는 생략 내지 축약적으로 제시된다.[31] 반면에 이 작품 속 화자는 줄곧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의식하며 현실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잊지 못함'을 노래하면서 애원과 간청, 위협적 언사와 같은 상반된 화법을 구사하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지식과 고사를 동원하여 그 필요성을 설득시키고자 한다.

이로써 보면 거기에는 자신을 아껴주고 존중해줬던 경험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화자에게는 그 자체보다 사랑의 성취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궐녁'·'천금'의 용어에서 보듯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을 지닌 상대가 금전을 지불하여야 하는 처지임을 의식하며, 그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데려가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함으로써 현실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또한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적인 면보다 지적인 측면을

30) 〈농서별곡〉에서도 정절을 강조하지만 육체적인 면에 방점이 놓여 있다. 상대 여성인 기녀 주옥은 유협자(遊俠子)의 속된 풍류로 수청을 강요받고 있지만 끝끝내 허신(許身)하지 않은 것으로 재현된다.

31) 길진숙, 「상사가류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조선 후기 사랑의 수사에 내재한 남성성/여성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60쪽.

www.kci.go.kr

언급한다. 이 역시 18·19세기 사대부 애정 가사인 〈금루사〉나 〈농서별곡〉에 재현된 사랑의 양태와 확연하게 갈라진다. 곧 상대 여성의 자태와 용모를 강조하고 육체적 사랑의 희열을 노래했던 것과 다르다. 이 점에서도 사랑의 현실적 주체는 보이지 않고 사랑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있는 여타 통속적 가사작품이나 사대부 애정가사와는 궤를 달리한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서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는 상대의 결단이 절대적이지만, '뜻'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그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동일문헌 수록 작품 〈찬해명기명선이라〉가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한 것에 가깝다면, 〈청룡가인한창가〉는 자신의 감정을 주도적으로 드러내며 구애하고 있는 노래라는 점에서 더욱 '자기'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여성상은 이 시기 한문 단편에서 폭넓게 출현하는 여성상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19세기의 한문 야담집에서 부와 권력을 지향하는 여성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남편을 선택하려는 의지의 소유자로 등장[32]하는가 하면, 자신의 안목과 마음에 따라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한다. 또한 첩의 지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혼인 구현[33]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 나아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며 지적인 자의식을 보여준다는 점[34]에서는 당대 한문소설 『포의교집』의 주인공인 하층 여성 초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점에서 본 가사 작품은 19세기 하층 여성 화자의 사랑을 보여주되, 당대 하위 주체들의 자의식과 자기 이해를 반영한다. 수동적인 기다림이나

32) 최기숙, 「여성성의 재발견 이성 지혜 성공의 탈영토화-18 19세기 야담집 소재 여성 일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98쪽.

33) 금산 기행 일타홍, 선천 기생, 평양기생 자란은 첩의 지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혼인을 구현하고 있다. 김성은, 「『계서야담』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여성 인식」, 『여성과 역사』, 8, 2008, 34쪽.

34)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291쪽.

www.kci.go.kr

선택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며 사랑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5. 맺음말

이 〈청룡가인한창가〉의 화자는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감정의 극단적 화법으로 호소하는 자학적 수사 부분이나 원한과 후한 등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그 도가 지나쳐서 일방적인 태도가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 안에 현실적인 실리를 우선하고 있으며 그 사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해도 화자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까지를 부정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욕망의 성취를 위한 정절 이데올로기의 소환은 상층의 이념에 종속되어 자기소외로 귀결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다고 보는 편이 온당해 보인다.

작품 속 화자는 자기 존중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상대에 대해 자신의 의향에 맞는 사람이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절의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타자성을 파기하고자 한다.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분명한 자기 이해를 내세우며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던 화자의 존재는, 19세기 하층 여성 화자의 가사 가운데에서도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권광범, 〈농서별곡〉, 역대가사문학집성 DB, 누리미디어.

김진형, 〈북천가〉, 역대가사문학집성 DB, 누리미디어.

『소수록』, 국립중앙도서관.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1~383쪽.

2. 저서 및 논문

길진숙, 「상사가류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조선 후기 사랑의 수사에 내재한 남성성/여성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55~387쪽.

김성은, 「『계서야담』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여성 인식」, 『여성과 역사』 8, 2008, 21~57쪽.

김소정, 「두십낭 고사의 다시 쓰기」, 『중국학』 68, 대한중국학회, 2019, 281쪽.

김신영, 「기녀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자기 존재의 표출방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1~60쪽.

김윤희, 「19세기 사대부 애정가사에 표면화된 기녀와의 애정서사와 형상화의 특질」, 『어문논집』 67, 민족어문학회, 2013, 197~120쪽.

김정석, 「기녀가사의 내면의식과 태도 고찰-〈찬해영명기명선이라〉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015, 379~412쪽.

김진희, 「조선조 서사물에 나타난 기녀 섹슈얼리티의 함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고소설연구학회, 2011, 335~367쪽.

김혜영, 「『소수록』의 성격과 작자 문제」, 『어문논총』 61,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173~194쪽.

김혜영, 「『소수록』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1~136쪽.

박수진, 「『소수록』에 나타난 기생들의 내면 의식과 사회문화」,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227~262쪽.

박애경, 「조선후기 장편가사의 생애담적 기능에 대하여-〈이정양가록〉과 〈소수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229~253쪽.

박애경,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기녀문학」,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

www.kci.go.kr

학회, 2006, 177~209쪽.
박혜숙, 「기생의 자기서사-〈기생명선자술가〉와 〈내 사랑 백석〉」,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214~242쪽.
성기옥, 「기녀시조의 감성특성과 시조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27~54쪽.
이상원, 「『소수록』 소재 청룡가인한창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44, 한국시가연구학회, 2018, 1~89쪽.
정인숙, 「남성작 애정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형상화 방식-〈금루사〉와 〈농서별곡〉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85~317쪽.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절화기담〉과 〈포의교집〉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279~306쪽.
최기숙, 「여성성의 재발견 이성 지혜 성공의 탈영토화-18 19세기 야담집 소재 여성 일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93~230쪽.
최병규, 「삼언(三言) 속의 정(情)과 욕(欲)」, 『중국어문학』, 영남중국어문학회, 2013, 43쪽.

www.kci.go.kr

ABSTRACT

The image of affection and the meaning of self-expression in the 19th century gasa 〈cheonglyonggainhanchangga〉

Yu, Jeong-sun

This thesis examines the meaning of affection and self-expression in the 19th century gasa 〈*cheonglyonggainhanchangga*〉. The lower-class female narrator recites love and parting in the biography of her life. She had a bad time and threw herself by the brothel, and met a suitable partner, but broke up. Therefore, she wants love to be fulfilled through her reunion with im, and she actively pursues courtship. The method of composing it is the intersec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rational persuasion in the biography.

At this time, the meeting with im, who found the entertainment space in Cheongju, seems close to a 'mistake' from a social point of view, and the need for love to be achieved through reunion does not seem to be great. Accordingly, the narrator tries to convince im of the necessity of love by emphasizing the purity of her emotions and the ferocity. For this purpose, emotions are arranged by appropriately adjusting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motions.

In addition, the narrator calls the need for love with im in the ethical names of 'agreement' and 'clearance'. These 'congruence' and 'righteousness' are used to build an opposing image of the otherness implied by Noryujanghwa. They say that they should be respectful of mutual agreement based on their own will and knowing themselves. Im is a person who agrees with her heart, and this choice is ultimately subjective in that it is based on her emotions and judgment. By insisting on the purity of feelings that material aspects are not important, the powerful Im also asks to take him away using his financial power.

The 19th century gasa 〈*cheonglyonggainhanchangga*〉 is meaningful

www.kci.go.kr

in that a woman, who had previously been an object, becomes the subject and sings of love in her life.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as a woman on the margins, she wanted to fulfill her realistic desires through active courtship rather than passive self-defense.

Key Words gasa, cheonglyonggainhanchangga, low class, female narrator, love, 19th century, subject

논문투고일: 2022.07.20.
심사완료일: 2022.08.06.
게재확정일: 2022.08.08.

www.kci.go.kr